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8. 22	08. 29	09. 05
대 표 기 도	통성 기도	이상호 목사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노지민 성도	강희수 성도	정용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말씀을 전해주시신 홍성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오늘은 광복절 76년 주년 되는 날입니다.
3. 예배 전 찬양 - 매 주일 오후 1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4. 예배 중에는 마스크 벗기가 가능합니다(이동 금지, 접종 완료 후 2주 지나야 함)
5. 소리 내어 찬송이나 통성기도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6.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

교우동정

수술	김미자 권사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 417장 ..... 다같이  
 기 도 Gebet ..... 김복자 권사  
 성경봉독 Predigttext ..... 요삼 : 2(신p396)..... 김복자 권사  
 설 교 Predigt ..... 그대의 영혼이 잘 됨 같이 ..... 홍성훈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 569장 .....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지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통성 기도

##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을 자주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예루살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분이 명문가에서 태어나 공회원(산헤드린 최고회의 의원)이 되어 동료 공회원들을 전도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이름 없는 촌 동네 나사렛의 가난한 여인에게서 나게 하셨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그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높고 귀하고 강한 데서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힘, 세상적인 힘을 의지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은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7세기 시리아 수도사 John Climacus(525~605)는 '탐욕은 사람이 치유할 수 있고 악의는 천사가 치유할 수 있다. 하지만 교만은 하나님밖에 치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낮고 천하고 약한 데서 시작하면 하나님 외엔 믿을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나면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던 말씀이 실천을 통해 진리로 확인되면 우리는 자신의 무지함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 김영봉 목사  
(워싱턴 사림의 교회 담임)

\* 주님은 우리 눈에 성공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자를 통해 놀라운 성공담을 만드신다. - Anne Lamott -